



강이야기
 . 4
 River & Culture

일러스트레이터 김도연



신 현 배 | 시인 / 아동문학가
 (4201708@hanmail.net)

하천에 얽힌 옛이야기/남한강

남한강으로 떠내려온 산봉우리 세 개

고려 시대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름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는 줄기차게 내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비는 쉬지 않고 날마다 내렸습니다.
 충청도 단양 사람들은 일주일이 되어도 비가 그치지 않자 마침내 피난을 떠났습니다. 날마다 쏟아진 비로 논도 밭도 물에 잠기더니 온 마을이 물바다로 변해 버려서 었습니다.
 “빨리빨리 달아나자! 우물쭈물하면 물귀신이 되겠어.”
 사람들은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자 겨우 몸만 빠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투어 높은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 쪽을 내려다보고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마을은 이미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잠겨 버렸어.”
 “어쩌면 좋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구먼.”
 사람들은 어두운 얼굴로 물줄기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앗, 저기 좀 봐! 산봉우리 세 개가 떠내려오네!”
 “어디, 어디? 와야, 정말이네!”
 커다란 산봉우리 세 개가 남한강으로 떠내려 왔습니다. 그 런데 이 산봉우리들은 더 이상 쓸려가지 않고 강 한가운데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홍수가 나서 소·돼지가 떠내려오는 건 봤지만 산봉우리

가 떠나려온 건 처음 보겠네.”

“그러게 말이야. 평생 이런 구경은 처음이야.”

일주일이 지나면서 장맛비가 그쳤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해 마을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봉우리 세 개는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산봉우리들을 바라보며 감탄을 했습니다.

“금강산 봉우리보다 아름다운걸. 우리 단양 땅 도담에 이런 멋진 봉우리들이 찾아오다니,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어.”

“허허, 정말 그래. 절경 중의 절경이야.”

남한강으로 떠나려온 산봉우리 세 개는 원래 강원도 정선 고을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장마로 산봉우리들이 뿔혀 물줄기에 휩쓸려 떠나려 가지, 정선 고을 원님은 아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땅에 있는 산봉우리들이 떠나려갔다.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아라.”

아전들은 원님의 명령으로 산봉우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들은 남한강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단양 땅 도담에 이르자 산봉우리 세 개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찾았다! 우리 산봉우리다!”

산봉우리 주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산봉우리를 보고 즐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전들은 그 모습을 보자 속이 끊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산봉우리를 공짜로 구경하네.”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단양 고을로부터 세를 받아내야 해.”

정선 고을 아전들은 단양 고을 원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도담에 있는 산봉우리 세 개가 어디에 있던 것인지 아시오? 우리 정선 땅에 있던 것이요.”

“.....”

“빠어난 절경을 자랑하던 산봉우리들이예요. 이 귀한 산봉우리들을 단양 고을 백성들이 공짜로 구경하던데, 이제부터 임대료를 받아야겠소. 일 년에 쌀 100섬을 내시오.”

산봉우리 세 개는 정선 고을에 있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따라서 단양 고을에서는 꼼짝없이 임대료를 내야 했습니다.

단양 고을 살림은 넉넉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해마다 꼬박 꼬박 임대료를 내야 하니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단양 고을 원님이 아전들을 모아 놓고 말했습니다.

“내일이 정선 고을에서 산봉우리 임대료를 받으러 오는 날이지? 쌀 100섬을 또 빼앗기겠구나. 흉년이 들어 고생하는 백성들에게 이 쌀을 나눠 주면 좋을 텐데, 또 남 좋은 일을 시키는구먼.”

“그렇습니다. 해마다 무거운 세금을 바쳐야 하다니, 너무나 무 억울합니다. 우리가 정선으로 가서 산봉우리들을 훔쳐왔습니까? 흉수가 나서 남한강으로 떠나려왔을 뿐인데 임대료를 물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 그럼 임대료를 내지 않을 좋은 방법이 있겠느냐?”

아전들은 입을 다물고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머리를 쥐어짜면서 궁리해 보지만 마땅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 때 동헌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아이가 원님과 아전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그런 일로 고민하세요? 임대료를 내지 않을 좋은 방법이 있으니 저한테 말기세요. 제가 단번에 해결해 드릴게요.”

이튿날, 정선 고을에서 아전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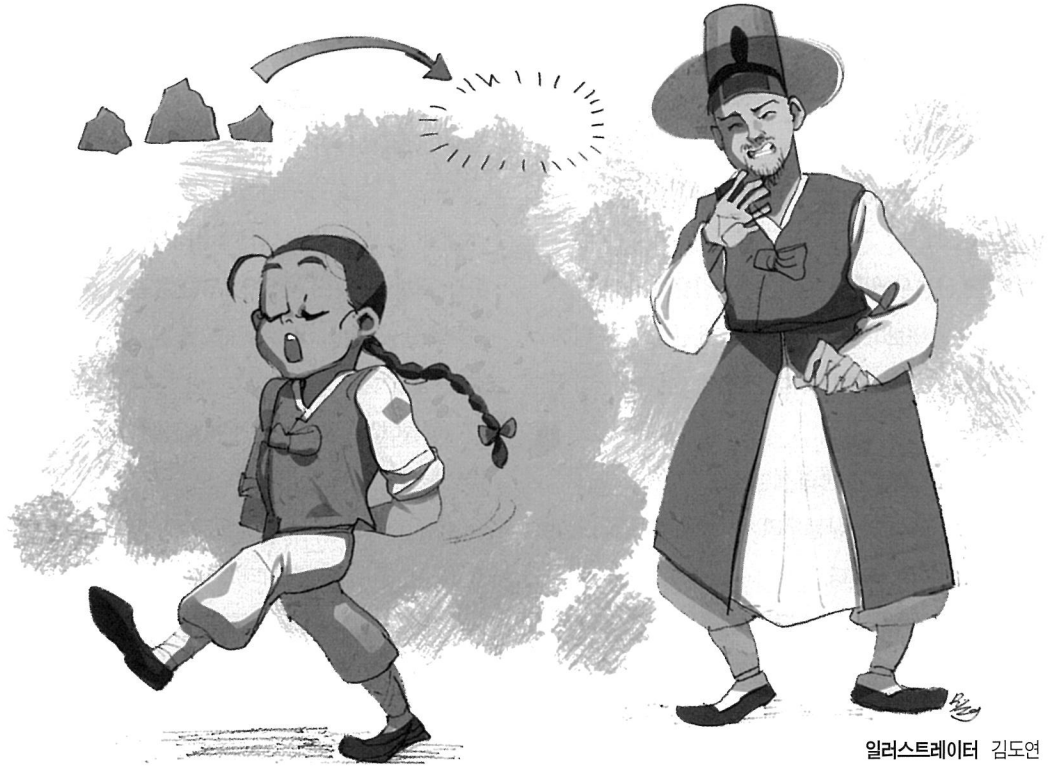
“일 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산봉우리들에 대한 임대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 때 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올해부터는 임대료를 못 내겠습니다. 산봉우리들이 우리가 원해서 가져왔습니까? 흉수가 나서 남한강으로 저절로 떠나려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억울하게 임대료를 냈니까?”

아이가 따지고 들자 정선 고을 원님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서라. 네가 그런 말을 해도 소용없다. 산봉우리들이 단양 고을 것이냐, 정선 고을 것이냐? 정선 고을 것이 틀림없지?”



일러스트레이터 김도연

그럼 어김없이 임대료를 내야 한다.”

“좋습니다. 산봉우리들이 정선 고을 것이 틀림없다고 하
셨죠? 그럼 도로 가져가십시오. 우리 단양 고을에서는 필요
없으니까요.”

정선 고을 아전은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산봉우리 세 개
를 정선 고을로 옮겨 가다니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선 고을 아전은 끝내 아무 말도 못 하고 빈손으로 돌아

갔습니다.

그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이의 지혜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린아이가 어찌면 저렇게 똑똑할까?”

“어른보다 나은걸. 이답에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

이 아이가 바로 뒷날 조선의 개국 공신이 되는 정도전임
니다. 그는 이성계를 도와 500년 조선 왕조의 태전을 닦았
다고 합니다. ●